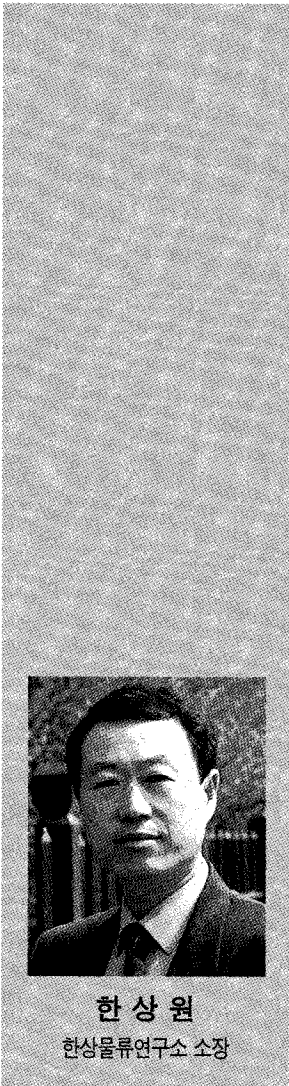


사각 링의 한판 싸움

Combat at logistics A Walmart-Amazon



“최강의 가격파괴로 유명한 XX클럽이 유통노하우로 운영됩니다”
 “매장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사이버공간에서 처리되므로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욱 저렴합니다”

“산지 또는 제조업체와 직송체제를 구축하고 대량구매를 통하므로써 최고의 가격파괴를 실현하였습니다”

국내의 한 할인점 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면서 ‘가격이 싼 이 유’ 라는 타이틀로 작성한 광고 문안이다.

한동안 소비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오던 할인점 업체들이 너도나 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서두르고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지하철 전동차 내의 광고는 IMF로 썰렁하다 못해 흉물스럽기까지 했지만 요즈음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반짝이는 광고로 빈틈없이 꽉 찬 모습 이다.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각종 인터넷 회사들의 광고 때문이다.

각종 매체들의 광고가 넘치는 것을 경기 회복에 따른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 들 한다.

피튀는 경영싸움은 시작되었는가 보다.

AOL(American On-line)이 자신보다 3배나 매출이 큰 타임위너사 를 인수했다 해서 온 지구가 떠들썩하고 있다.

그 분석도 제각각이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 아직 성공판정 을 내리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그러나 AOL의 타임위너 인수 자체만으 로 인터넷의 강자와 기존의 산업체 강자의 사각링에서의 싸움은 인터넷 코너의 승리로 일단 보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관중들은 AOL의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링의

싸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 싸움은 좀 색다른 링의 싸움이다.

이름하여 '물류전'이다.

홍코너는 월마트가, 청코너는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다.

물류전이 AOL전보다 더 관심을 끄는 한판 싸움이 되는 것은 그 동안 소매시장을 크게 차지했던 할인점들에게 사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1996년부터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아마존에 밀려 부진을 면치 못했다.

미미하게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가니 월마트는 팔을 걷어 부쳤다. 그리고 링으로 아마존을 불러 들인 것이다.

전자상거래 전문회사로 월마트 컴을 분사시켜 상장시켰고 영국 유통업체와도 업무를 제휴했으며 미국 최대 인터넷 아메리카온라인(AOL)과도 제휴했고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쉽게 영입하기 위해 월마트 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패로앨토에 두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21세기를 맞으며 세계인이 관심갖는 사각 링에서 벌어진 한판 승부의 싸움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류의 중요성을 상당히 깊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마존은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한다. 폭발적인 고객요구에 비해서 배달 서비스가 따르지 못하니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으며 저가 상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취급상품의 다양화를 꾀하지만 여의치 못한 점 등 경영전략의 차질로 수정을 반복하는 것은 싸움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보고있다.

전자상거래의 남다른 통찰력과 사업전략으로 사업은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물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는 결과인 셈이다.

초기에 전혀 필요를 못 느꼈던 창고를 갖게 되면서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반면, 월마트는 사업 초기부터 변두리에 위치한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류 시스템의 운영을 고려해서 신속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통합된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비자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글로벌아웃소싱, 소비자 가격 만족을 위한 구호 "매일 최저가격으로!" 등으로 고객만족 최우선 경영은 월마트의 매출로 나타났고 소매점업계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 4000여 체인과 400여 물류센터를 가진 월마트가 인터넷 사업에 본격 나서게 되면 사각의 링 주위에 운집한 세계인들은 초미의 관심을 가질 것이다.

월마트와 아마존 중 누가 들것에 실려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이벤트임에는 틀림없다.

국내 관련업체들의 관심도 여기에 쏠리고 있다. [ko]